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콜버그(Kohlberg)의 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분석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윤 다 영

콜버그(Kohlberg)의 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분석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윤 다 영

# 인 준 서

윤다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양 은 심 ⑩

심사위원 임 비 오 ⑩

심사위원 김 미 숙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에게 분노, 흥분, 불안, 공포, 좌절과 같은 기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성적 위주 교육에 대한 불만 등이 증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의 도덕 발달 단계와 Buss&Durkee의 공격성 정의를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은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500명을 표집 하였다. 이 중 무 기입이나 이중 기입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한 유효 표본은 448부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Ver 19.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도덕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콜버그(Kohlberg)의 갈등 이야기를 바탕으로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전환시킨 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지(The Defining Issues test, DIT)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공격성 측정을 위해 Buss&Du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영(1983)이 번안하여 신선미(2003)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덕성과 공격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EFA)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스포츠 활동의 유·무에 따른 청소년들의 도덕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도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부정성(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통계결과가 나타났고( $p=.01$ ),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과 간접공격성(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p=.03$ ).

셋째,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낮을수록 폭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정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판단(도덕성)이 낮을수록 폭력성(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가설 .....	4
3. 연구의 제한점 .....	5
4. 용어의 정리 .....	5
<b>II. 이론적 배경</b> .....	<b>7</b>
1. 도덕성의 정의 .....	7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철학 .....	9
3. 도덕 판단력 검사 .....	16
4. 스포츠 활동에서의 도덕성 발달 연구 .....	19
<b>III. 연구 방법</b> .....	<b>21</b>
1. 연구대상 .....	21
2. 측정도구 .....	22
3. 연구절차 .....	25
4. 자료 처리 .....	26

IV. 연구결과 .....	27
1.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	27
2. 스포츠 활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29
3. 청소년의 도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31
V. 논의 .....	32
VI. 결론 및 제언 .....	3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 표 목 차

표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단계 .....	11
표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 특징 .....	15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포 .....	21
표 4. 도덕적 갈등 이야기의 하위 요소별 분석 .....	22
표 5. 도덕성의 신뢰도 분석 .....	23
표 6. 공격성의 요인분석 결과 .....	24
표 7. 공격성의 신뢰도 분석 .....	25
표 8.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도덕성 차이 검증 .....	28
표 9.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검증 .....	29
표 10.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	31

## 그림 목 차

그림 1.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도덕성 차이 .....	28
그림 2.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	3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지배적인 삶의 가치 및 태도를 반영하는 축소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윤리적 사고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건전한 철학을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인성향상을 이루고 시민의식을 높여준다고 확신할 수 있다(Leonard, 1986). 또한, 전통적으로 스포츠 활동은 규칙에 의존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종목에 따라 규칙의 정도나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규칙은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문종민, 1995).

스포츠 활동은 하나의 축소된 사회 장면으로서 유희 및 경기의 경험 과정에서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게 하고, 청소년 개인의 수준에 건전한 인성 및 태도 형성의 기능과 바람직한 사회화의 가치를 지닌 스포츠를 보급하고 장려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합법적으로 정화시켜 그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신체활동으로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파생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그들을 전인적, 사회적 형성으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임번장, 1986).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1913~1960)가 “나는 윤리에 관한 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스포츠로부터 배웠다.”고 말한 것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윤리 의식이 고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문종민, 1995). 또한 충동적인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포츠 활동은 전인적 성장 및 심리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할 수 있

는 활동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부족의 보충, 인간관계의 개선, 창의성의 재고, 심리적 갈등,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심리적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나아가 도덕성 발달의 촉구, 경쟁의식 배양, 시민정신 등 특정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규범과 역할을 학습하는데 최우선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임변장, 1986).

실제로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등은 자기 통제 및 자기 수양을 유도하여 내면의 공격성을 조절하고, 경기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역할 분담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종률, 2002).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지학습 위주의 교과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적영역의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위주의 성적에만 치중하여 인성 교육이 소홀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붕괴되고 공격성이 증가되어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정인, 1997).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것이다. 신체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많이 있다. 구창모(1991)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느끼게 하는 일은 청소년 비행의 억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임변장(1986)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성 육성으로 비행을 예방과 치유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특정 사회가 소유하는 사회 규범, 역할기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의 연구(신준호, 1997; 고재공 & 정호원, 1998),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비도덕적 행동이 감소되고, 가치·태도·사회적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용환, 1998;

유재완, 1999; Csikszentmihaly & Larson, 1984)결과는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비행에 스포츠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 스포츠는 입시위주 교육정책에서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 성적 위주의 입시 교육, 체육수업의 감소, 스포츠 이용 시설의 부족, 페어플레이에 관한 문제 등은 현대 스포츠의 윤리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송형석, 2001; 이학준, 2003). 또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보다 게임이나 매체를 통해 관람하는 등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올바른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확립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발달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인 성장·발달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이 발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도덕 발달 6단계 이론 중 대인관계의 조화와 사회 질서 및 권위 유지에 대한 3~4단계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오늘날 청소년들은 도덕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판단 능력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여 도덕성 단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성 확립 시기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도덕성 발달과 공격성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고,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가 되는 도덕적 가치를 밝혀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남·여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관하여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공격성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1)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라 도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사회적 가치 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윤리적 가치 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간접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흥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폭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언어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비 참가 청소년 보다 부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1) 본 연구의 설문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접 참여하는 교사에게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은 철저히 이루어 졌다.

2)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 지역의 청소년들로만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 4.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윤리라는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덕성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합리적 의도를 지니고 도덕 교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성, 즉 자아 및 타인행위에 대하여 선(善), 악(惡), 정(正), 사(邪)를 구별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을 의미한다.

#### 2) 스포츠 활동

개인의 생활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3) 도덕성 발달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상 일련의 문화적 준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적 준칙을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을 말한다.

### 4) 스포츠 윤리

스포츠 행위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을 말하며, 스포츠 행위의 보편적 방식을 터득함을 뜻한다. 또한 스포츠 행위의 도덕적 본질과 근거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써 스포츠 행위의 윤리개념을 이해하고 그 도덕규범을 정당화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철학의 한 분야이다.

### 5)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sup>1)</sup>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상스러움, 조심성 없는 호기심, 건방진 태도, 비판적인 태도 등과 공격성의 가장 부드러운 형태이다.

### 6) 부정성(negativism)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함을 말한다.

---

1) Buss & Durkee(1957)은 공격성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폭행 : 타인에게 행하는 육체적 폭력행위.
- ② 간접적 공격성 :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
- ③ 흥분성 :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
- ④ 부정성 :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
- ⑤ 원한 : 실제적 혹은 상상적인 학대로 인해 현실에 대해 갖는 분노의 감정으로 타인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
- ⑥ 의심 : 타인을 믿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것.
- ⑦ 언어적 공격성 :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
- ⑧ 죄책감 :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과 공격성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학적 논의와 비판을 하고자 한다.

### 1. 도덕성의 정의

도덕의 어의와 본질은 ‘인륜의 태도, 사람의 궁극적인 자유에서 유일무이한 길로 인간 행위의 절대 규범(한글학회, 1992; 박종률, 2002)’이란 ‘우리말 큰 사전’의 정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도덕의 원리, 규칙 등 도덕규범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도덕은 개인 외적이고, 개인과 별도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다(남궁달화, 2000; 박종률, 2002).

도덕성(morality)은 윤리적·사회적 규범, 예절이나 관습 등을 뜻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집단이나 사회 규범에 순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도덕적 원리에 기반을 둔 품성의 체계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사고를 하고, 새로운 도덕적 원리를 창출해 내는 행동을 의미한다(김현배, 1994). 또한 도덕성은 그 속에 철학적, 논리적, 경험 과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덕이 교육 또는 사회화 과정에 의해 개인화 된 상태, 즉 내면화 된 상태를 지칭하기도 한다.

도덕성의 개념은 도덕성 구성요소의 이해를 통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도덕성의 발달은 크게 정신분석학적 관점,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 그리고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김정규, 박찬주, 1991).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는 도덕성을 초자아로 보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강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은 양심, 즉 어떤 외적인 보상이나 벌이 없어도 스스로 규범에서 이탈하려는 것에 저항하여 규범을 지키는 실천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인지 발달론적 관점은 도덕적 판단 즉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신선미, 2003).

Freud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적 관점은 도덕성을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주로 정서적, 감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에 접근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초자아의 형성을 도덕성의 함양으로 본다. 여기서 초자아는 자녀가 부모의 가치, 도덕규범을 동일시함으로써 개인에게 내면화된 도덕성을 말한다(남궁달화, 2000).

일반적인 발달 이론에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적용시킨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은 도덕성을 사회적 규범, 더 넓게는 타인 지향적 이타행위(altruistic behavior)와 동일하게 본다. 이 관점 또한 정신분석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행동 통제가 내면화된 상태를 도덕성이 함양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관점과 다른 부분은 내면화 과정이 부모와의 동일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모델링과 강화(reinforcement)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Bandura, 1977).

인지 발달론적 관점은 흔히 구성주의(structuralism)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의 입장으로 주로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접근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입장은 도덕성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해 인지발달론자들은 이러한 상대적인 견해를 부정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을 정의와 박애 정신에 입각하여 판정하는 과정”이라는 철학적인 정의를 내린다(Power, 1994).

인지발달론자의 대표자인 피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의 이론을 살펴보면, Piaget(1960)에 의하면 도덕적 성숙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

정된 규칙아래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데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 판단의 단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콜버그(Kohlberg, 1969)는 Piaget의 도덕 발달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확장시켰다. 그러나 그는 Piaget와는 달리 도덕 발달의 수준을 실제적 행동보다 사고능력과 판단 능력으로 구분하려 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곤경상황(dilemma)에 빠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상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개개인이 어느 정도로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 어느 수준의 추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냐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철학

콜버그(Kohlberg)는 도덕이란 ‘도덕 판단에 기초를 둔 의사결정들’이라고 정의하였다. 도덕발달이란 사회적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규정적 양식이다. 도덕적 갈등상태를 해결하고,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상의 일련의 문화적 준칙으로 정의하여 기본적인 문화적 준칙을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며, 도덕성을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으로 여겼다(Kohlberg, 1958).

콜버그(Kohlberg)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n), 칸트(Kant), 및 롤즈(Rawls)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도덕발달 및 판단에 관한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적 발달과 사고 추리 및 판단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달시켰으며, 교육적인 측

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크게 인정하며 듀이(Dewey)의 영향을 받아 민주적인 대화의 방법을 학급에 활용함으로써 도덕적인 딜레마를 생각하게 하며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단계로 지향할 수 있다(김봉소, 김민남, 1985; 김은영, 2007).

콜버그(Kohlberg)는 1955년 종단적 연구와 범문화적 연구를 통해 피아제의 도덕성 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히 판단한 것이라 보고 연구 대상을 아동뿐 만 아니라 성인에 까지 확대하여 도덕성의 발달단계를 한층 더 체계화하고 도덕성에 관한 수준과 단계를 다시 정의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피아제의 도덕 단계는 2개의 일반적인 단계인 반면 콜버그(Kohlberg)의 체계는 더욱 분화되어 3개의 도덕 수준과 6개의 발달 단계로 나누어 진다. 또한 피아제의 도덕적 성숙은 12세 정도인 자율적 추론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성숙을 원리에 의한 판단 능력으로 보는 바 이러한 수준은 20대 전후에 가서야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덕 판단의 측정 방법의 차이는 피아제는 양자택일(兩者擇一)적 판단을 요하는 폐쇄형의 질문을 면접으로 한 반면,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갈등에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판단하게 하는 개방형(open-ended)의 문항으로 면접하였다(김선자, 1993).

콜버그(Kohlberg)는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제시된 주인공의 상황과 행동을 개인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그 상황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리를 하여 주인공의 행동을 공정한가에 대한 여부와 정의로운가에 대한 여부, 혹은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도출된 결과를 추리 혹은 도덕적 판단의 6단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콜버그(Kohlberg)의 발달 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순서를 거쳐야 하는 위계성을 강조하였다(임혜옥, 2005).

이러한 도덕성 발달 단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콜버그(Kohlberg)는 3수준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총 6단계의 도덕발달 단계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단계

수 준		단 계	
I 수준	인습 이전 도덕 수준	1 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
		2 단계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단계
II 수준	인습적 도덕 수준	3 단계	대인 관계의 조화를 위한 단계
		4 단계	사회질서 및 권위유지의 단계
III 수준	인습 이후 도덕 수준	5 단계	사회계약적 원리 지향의 단계
		6 단계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의 단계

1) 인습이전 도덕수준(Preconventional Moral Level)

이 수준은 도덕적 규칙이나 선악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인간적 의미나 개인의 내적 수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쾌락적 결과, 또는 도덕적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

**제1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 (Punishment and Obedience Orientation)**

제1단계는 도덕적 규칙이라는 것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의 외부적 결과만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며, 벌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명성이나 권위에 대한 자기중심적 복종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단계로 규칙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그것이 만들어진 동기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상호 관련성도 이해하지 못한다.

제1단계의 도덕성은 자아 중심적 관심이 우세하고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외적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되며 동기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자의 견해와 본인의 견해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

### 제2단계: 욕구충족수단으로의 도덕성단계(Instrument Hedonist Orientation)

제2단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며 올바른 행위란 그 자신들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생각하여 인간 관계를 일종의 교환관계로 간주한다. 공정성이나 상호성, 공정한 분배 등의 개념이 나타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행위의 물리적 형태나 결과를 행위의 인간적 필요라는 것과 구분하고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한다. 제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우세하다. 본인의 흥미, 이익, 관심을 권위자의 것과는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고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과의 거래가 전개된다. 이 때 남에 대한 공정한 규칙적용을 도덕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 2) 인습적 도덕수준(Conventional Moral Level)

개인이 가정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그것의 즉각적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나 사회의 질서에 단순히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며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유지하여 정당화하고 그 질서에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 제3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Interpersonal Concordance Orientation)

제3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올바른 행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승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어떤 생각과 기대는 다른 사람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도덕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제3단계에서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도덕성을 갖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용서

나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제3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경우도 있으나 아직 추상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생겨나지 못한다.

#### **제4단계: 사회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Law and Order Orientation)**

제4단계에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법에 의해 유대 관계를 맺고 법에 의해 사회 전체가 유지되고 각 개인은 법에 의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법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허용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올바른 행위란 기본적인 규칙에 의해 정의되어 의무를 수행하는 행동, 권위를 존경하는 행동, 주어진 사회질서를 그 자체로서 유지하려는 행동이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사회의 복지를 유지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부과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여긴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집단 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을 그 전체로서 유지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3) 인습이후 도덕 수준(Post-Conventional Moral Level)**

이 수준에서는 도덕적 가치나 원리가 가치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와 자신과 그 집단과의 유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새롭고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 **제5단계: 사회 계약적 원리 지향의 단계(Social-Contract Legalistic Orientation)**

제5단계에서의 올바른 행동은 개인의 기본 권리에 비추어 모든 사회가 비판적인 합의에 도달한 도덕 기준으로 정의되는 공리주의적 경향이 있다. 개

인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강조한다. 법적 관점이 중요시 되지만 법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라 법도 수정 가능하다는 것 또한 중시한다. 인간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다수의 가치와 규칙은 집단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집단에 따른 상대적 가치는 그 나름대로 준수될 필요를 인정하되, 사회 계약의 원리에 따라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도 존재함을 제 5단계에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다. 의무감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사회 계약적인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가정, 우정, 신뢰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 등은 모두 사회 계약이란 대 원칙 위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권리 존중이란 가치의 준수가 핵심적 관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5단계의 사람들은 사회계약 성립의 취지에 입각해서 사회를 바라본다. 그래서 사회계약, 사회적 합의, 객관적 공평성, 합법적 절차 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통합 정리하려 하고, 도덕적 관점과 법리적 관점에서 사회의 문제를 고려할 줄 알며, 도덕적, 법리적 요소는 소로 갈등하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까지는 그 법에 대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 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지킨다.

#### **제6단계: 보편적 도덕원리에 확신으로서의 도덕성(Conscience or Principle Orientation)**

제6단계에서의 올바른 행위는 스스로 선택한 도덕원리에 따른 양심의 결단으로 행해지며, 도덕원리는 논리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일관성 있는 것으로 공정성, 인간권리의 상호성과 평등, 개인으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지닌 원리를 여기게 하는 자책감에

대한 관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정의의 보편적 원리, 인권의 평등성,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윤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이 옳은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보편적 윤리 원칙이 삶의 원칙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보편적 윤리 원칙에 따라 사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란 판단에 의해서 드는 생각이다.

이러한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 특징

수 준	단 계		특 징
I 수준 (인습 이전 도덕 수준)	1 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	권위자나 강력한 힘에 복종하여 처벌을 피하기 원한다.
	2 단계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단계	이해관계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도덕적 근거가 되어 타인과 공정한 거래를 성립한다.
II 수준 (인습적 도덕 수준)	3 단계	대인 관계의 조화를 위한 단계	인간관계의 조화로 도덕성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
	4 단계	사회질서 및 권위유지의 단계	올바른 행동으로 의무를 수행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사회질서와 질서유지의 도덕성을 의미한다.
III 수준 (인습 이후 도덕 수준)	5 단계	사회계약적 원리 지향의 단계	기본 권리와 기본가치, 사회의 합법적 계약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 계산을 통한 근거에 도덕적 관념을 둔다.
	6 단계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의 단계	보편 윤리적 원리에 의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사회 관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콜버그(Kohlberg)는 이상의 여섯 단계에서 상위 단계는 철학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서 하위 단계로부터 이동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콜버그(Kohlberg)가 말하는 성숙한 도덕적 행동은 성숙한 도덕적 사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말은 도덕적 추리에 의해 생성된 행위만이 오로지 도덕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올바른 도덕적 행위란 도덕적 지식의 기초 위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Kohlberg, 1988).

### 3. 도덕 판단력 검사

도덕성에 관한 인지 발달론적 접근은 중요한 세 가지 계기를 통해 발전해왔다. 첫째는 인지 발달론적 입장의 도덕성 연구의 발판이 된 Piaget(1932)의 ‘아동의 도덕 판단 연구’이고, 둘째는 1932년 이후 누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piaget의 이론을 심화, 발전시킨 Kohlberg의 학위논문(1958)이다. 세 번째는 Kohlberg의 개인면담검사 내용 중 검사시행과 채점상의 많은 문제들을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전환시킨 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The Defining Issues test, DIT)이다. 즉, Piaget의 이론은 Kohlberg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정교해졌고, Kohlberg의 이론은 Rest에 의해서 더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신선미, 2003; 문용린, 2008, 재인용).

Piaget과 Kohlberg로 대표되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성을 도덕과 관련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 본다. 인지 발달론적 도덕성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인지구조이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개념화하며 판단하게 되는 ‘인지적 틀(mental set)’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문용린, 문미희 1993).

Rest는 도덕성을 사회적 조건과 인간의 심리적 과정에 처한 것으로 간주

하면서 그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도덕성은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발생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집단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소원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협동과 조화로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협동적 조직의 기본적인 요구에서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감정이입,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유지,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의 발달, 사회적 인지의 발달 등도 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 만 아니라 도덕성 발달의 기본이 된다. 또한 Rest는 도덕성 개념에 대해 Frankena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장래 인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가와 그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판결해 나아가는지와 관계있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선미, 2003). 이렇듯 DIT의 기본 토대가 되는 Rest의 도덕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인 간 상호기대의 조정’과 ‘손익의 균형화’라는 두 요소에 대한 피험자의 개념화 수준을 통해 단계를 재 평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DIT를 개발하였다. 또한 Kohlberg의 단순단계모형 대신 복합발달모형을 제안하여 인지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음 단계의 사고형태가 출현할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주장하였다(문용린, 1986). 이와 같이 Kohlberg의 단순단계모형의 가정이 DIT를 이용한 연구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Rest는 다음과 같이 Kohlberg의 단순단계모형과 그의 견해간의 상이한 점을 말하고 있다.

첫째, 피험자는 동일한 과제나 상황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한다. 재검사 신뢰도를 보면 DIT나 Kohlberg검사 모두에 마찬가지로 공히 70~8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험자의 도덕 판단이 고착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시사한다. 특히 최근에 수정된 Kohlberg의 채점방식에 의한 재검사 신뢰도는 90정도로 보고 있지만, 피험자의 30%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아 피험자는

어느 특정시기에 하나의 발달 단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의 사고에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검사자료의 형태, 지시사항, 실시과정, 채점기준 그리고 검사시행의 엄격성 등에 따라 피험자의 발달단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 발달은 DIT에서와 같이 복합적인 모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성의 측정은 주어진 과제, 검사자료, 검사조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 측정의 기본 질문은 “그 피험자가 몇 단계의 사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피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다양한 도덕적 사고를 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도덕적 사고의 발달은 낮은 단계의 사고가 줄어들고 높은 단계의 사고가 확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Rest, 1983; 문용린, 1986, 재인용). 이와 같이 Rest는 Kohlberg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적 기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Kohlberg의 몇 가지 이론적 가정과 DIT의한 연구 자료의 검증 결과사이에 다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인지발달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Rest는 도덕 판단력 검사에 의해 측정된 “도덕 판단”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된 도덕 판단 점수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도덕 판단 점수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분석하여 적합한 행동과정을 판단하는 피험자의 기본적인고도 개념적인 체계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 판단 검사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사고의 개념적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 판단 수준은 각 개인의 인성에 중요한 측면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성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Rest, 1979).

#### 4. 스포츠 활동에서의 도덕성 발달 연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격 완성과 도덕성 발달은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격완성과 도덕성 발달은 스포츠 활동의 본질적인 가치 또는 내재적인 가치로 알려져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인 구조 안에서 구성되고 있는 상반된 가치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외재적 가치의 측면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라는 특수한 성장과정에서 특정사회의 존속 및 통합에 필요한 신념·규범·가치·태도·심미감·인지적 경험 등을 내면화시켜 전체사회의 균형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명예·정직·페어플레이·예의범절 등과 같은 운동정신을 강조하며 상대방을 공명정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공이나 승리 혹은 실패나 패배에 동요되지 않고 경쟁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선린우호정신과 미적 창조 및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내적 가치지향을 추구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건전한 올바른 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건전한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오순근, 1994). 또한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의 변혁이 가장 큰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소비생활과 여가 생활을 퇴폐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무해한 공격성의 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공격적 요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매개체가 되어 합리적인 욕구의 조절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임혜옥, 2005). 이와 관련하여 Meakin(1981)은 사회적 학습이론과 구조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스포츠와 게임의 참가가 도덕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기술하였다. 그는 게임의 규칙에는 기능적인 측면

과 함께 도덕적 딜레마를 포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도덕 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성 발달을 위해 의도적인 스포츠 활동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에서 명백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지도자에 의한 칭찬과 상의 강화 작용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윤만형, 2000).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승리시의 겸허함·패배시의 자기통제·예의범절 등의 도덕적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페어플레이 정신은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하여 형성되는 기본적인 도덕적 성향의 하나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태도를 학습하고 승리를 위한 비열한 행동이나 전략을 배격하며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한다는 가치의식 및 태도체계의 함양에 기여한다(신영철, 2000). 또한 승리시의 겸허함과 패배시의 자기통제는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신이다. 이는 경기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기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보다는 최상의 노력 추구를 강조함으로써 패했다 하더라도 패배감이나 허무감, 절망감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고 극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기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서의 예절이란 인간의 양심과 관련된 정신적 규범으로서 스포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다. 이러한 예절과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에서의 도덕성 발달은 스포츠 참여자의 내면적 성취를 고귀하게 여기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 및 정신적 태도의 내면화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나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역할 분담은 자기 통제 및 자기 수양을 유도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 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게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500명을 표집 하였다. 이 중 무 기입이나 이중 기입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한 유효 표본은 448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에서 사용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력, 학년,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포

특성		빈도(Frequency)	퍼센트(%)
성별	남자	200	44.6 %
	여자	248	55.4 %
학력	중학교	134	29.9 %
	고등학교	314	70.1 %
학년	1학년	160	35.7 %
	2학년	125	27.9 %
	3학년	163	36.4 %
스포츠 활동	예	210	46.9 %
	아니오	238	53.1 %

## 2. 측정도구

### 1) 도덕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도덕발달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도덕 판단력 검사’(한국판 DIT 간편형)를 사용하였다. 원본은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을 기초로 Rest(1979, 1986, 1987)가 개발하여 표준화된 설문지이다. 일명 DIT(Defining Issues Test)라고 불리는 이 설문지는 6개의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지 않은 3개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가지 이야기를 번안하여 간편하게 만든 한국판 DIT 간편형(문용린, 1986)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도덕 갈등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대한 6개씩(항목의 설정은 Kohlberg의 도덕가치 판단과 도덕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각 문항)의 응답문항을 두었으며, 세 개의 각 검사 문항에 “예”, “아니오”라는 어떤 갈등 점을 선택했든 관계없이 도덕성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①~⑤를 그대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 가치판단과 도덕 발달 단계를 높게 나타내도록 하였다. “도덕 갈등 이야기” 하위 요소별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도덕적 갈등 이야기의 하위 요소별 분석

하위요인	문항번호
남편의 고민	질문1 (도덕적 가치판단)
탈옥수	질문2 (사회적 가치판단)
의사와 환자	질문3 (윤리적 가치판단)

## 2) 도덕성의 신뢰도 분석

검사자의 문항에 대한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는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이용하였다. Cronbach'  $\alpha$ 의 계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높고 음을 규정하는 값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알파 값이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도덕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덕성 하위요인으로 3가지 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0.770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덕성의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신뢰도 (Cronbach' $\alpha$ )
도덕성	남편의 고민	.77
	탈옥수	
	의사와 환자	

## 3) 공격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공격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를 Buss & Du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영(1983)이 번안하여 신선미(2003)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가지 하위척도(간접공격성, 흥분성, 폭력성, 언어적 폭력성, 부정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문항으로 간접공격성 4문항, 흥분성 3문항, 폭력성 3문항, 언어적 폭력성 4문항,

부정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공격성을 재는 많은 척도들 중에서 가장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공격성의 타당도의 검증을 위하여 개념 타당도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EFA)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통해서 각 요인별로 요인적 채치가 .50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으며, 요인 재적치 .50이하인 요인들을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공격성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공격성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1	2	3	4	5
공36	.59	.44	.03	.04	.02
공40	.53	.39	.12	.02	.21
공48	.52	.11	.11	.15	.14
공10	.52	.04	-.04	.32	.11
공13	.52	.10	.08	.23	.27
공20	.21	.68	.08	.24	.04
공38	-.05	.55	.19	.05	.24
공32	.27	.53	.28	.14	-.06
공1	-.06	.15	.67	.14	.05
공17	.02	.23	.66	.18	.08
공41	.33	-.13	.60	.003	.09
공3	.23	.005	.001	.61	-.01
공4	.16	.19	.18	.57	-.05
공2	-.05	.17	.19	.52	.04
공25	.06	-.003	.14	.51	.24
공16	.19	.17	-.001	.16	.71
공14	.30	.04	.18	.07	.61
공39	-.15	.28	.22	-.004	.53
공7	-.01	-.03	.20	.11	.51

#### 4) 공격성의 신뢰도 분석

공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요인별로 신뢰도는 간접공격성 0.60, 흥분성 0.62, 폭력성 0.66, 언어적 공격성 0.63, 부정성 0.71이고,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 0.83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공격성의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신뢰도 (Cronbach' $\alpha$ )	
간접 공격성	공격성 (2, 3, 4, 25)	.60	.83
흥분성	공격성 (20, 32, 38)	.62	
폭력성	공격성 (1, 17, 41)	.66	
언어적 공격성	공격성 (7, 14, 16, 39)	.63	
부정성	공격성 (10, 13, 36, 40, 48)	.71	

### 3. 연구절차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설문지와 함께 본 논문에 사용할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의 청소년들의 임의표본을 추출하였다.

임의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선정된 공공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의 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요원에게 설문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 4. 자료 처리

설문 조사에서 회수된 자료 중에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Ver 19.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에 따라 필요한 독립표본 t-test와 표준다중회귀분석,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넷째,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EFA)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철학 이론에 의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따른 도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활동에서의 도덕성과 공격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기초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8>, <그림 1>과 같다.

도덕성은 청소년의 가치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도덕적 가치판단, 사회적 가치판단, 윤리적 가치판단으로 구성하였다. <표 8>은 스포츠 활동의 유·무에 따라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증한 결과 도덕적 가치판단, 사회적 가치판단, 윤리적 가치판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가치판단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M=2.86$ 이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M=2.92$ 으로 두 표본 분산 차이 검증 결과  $F$ 값이 .25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가치판단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집단은  $M=2.75$ 이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M=2.80$ 으로  $F$ 값이 .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치판단은 스포츠 활동 참여 집단에서  $M=2.80$ 이고,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  $M=2.78$ 로 두 표본 분산 차이 검증 결과  $F$ 값이 .001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표 8.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도덕성 차이 검증

스포츠 활동		N	M	SD	t
도덕적 가치판단	예	210	2.86	.47	-1.56
	아니오	238	2.92	.44	
사회적 가치판단	예	210	2.75	.46	-1.25
	아니오	238	2.80	.45	
윤리적 가치판단	예	210	2.80	.48	.30
	아니오	238	2.7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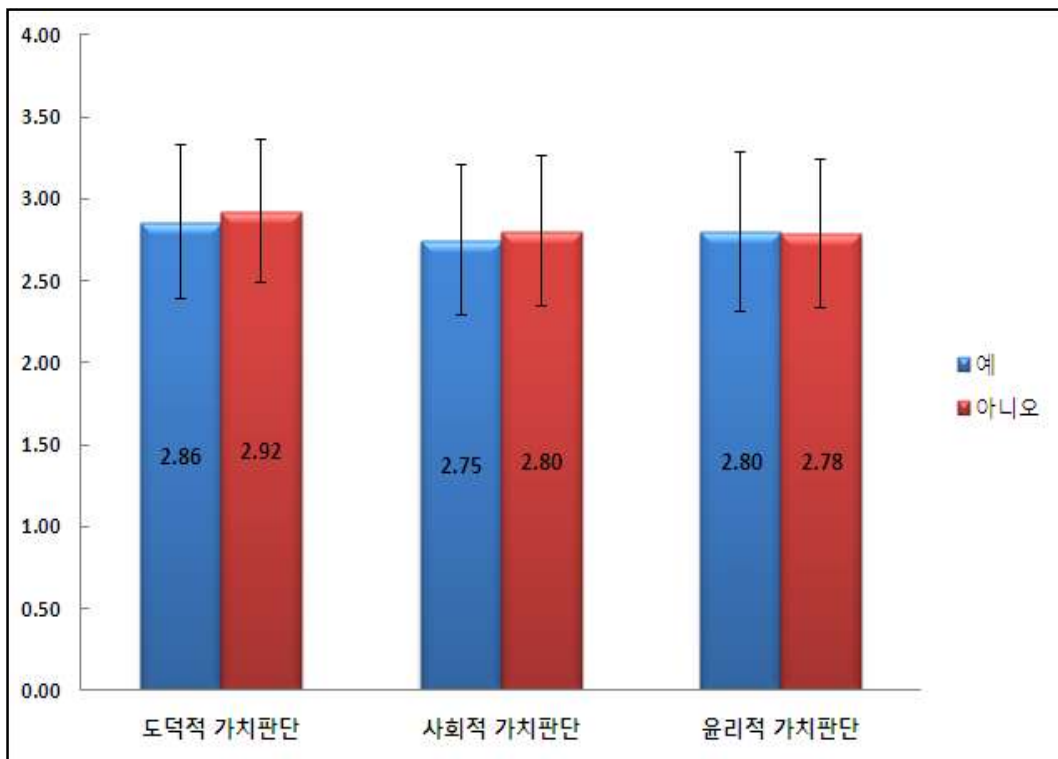


그림 1.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도덕성 차이

## 2. 스포츠 활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그림 2>와 같다.

<표 9>를 보면 요인별로 간접공격성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은  $M=3.36$ 이고,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M=3.47^*$ 가 있으며, 등 분산 가정 하에서  $t$ 값이  $-1.78$ 로 유의수준  $p<.05$ 에서 스포츠 활동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성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은  $M=2.40$ 이고,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M=2.33$ 으로 차이가 있으며, 등 분산 가정 하에서  $t$ 값이  $-1.05$ 로 유의수준  $p<.05$ 에서 스포츠 활동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검증

스포츠 활동		N	M	SD	<i>t</i>
폭력성	예	210	3.41	.87	1.74
	아니오	238	3.27	.85	
부정성	예	210	2.40	.74	1.05**
	아니오	238	2.33	.63	
흥분성	예	210	3.11	.85	.33
	아니오	238	3.08	.87	
언어공격성	예	210	3.12	.66	.03
	아니오	238	3.12	.59	
간접공격성	예	210	3.36	.69	$-1.78^*$
	아니오	238	3.4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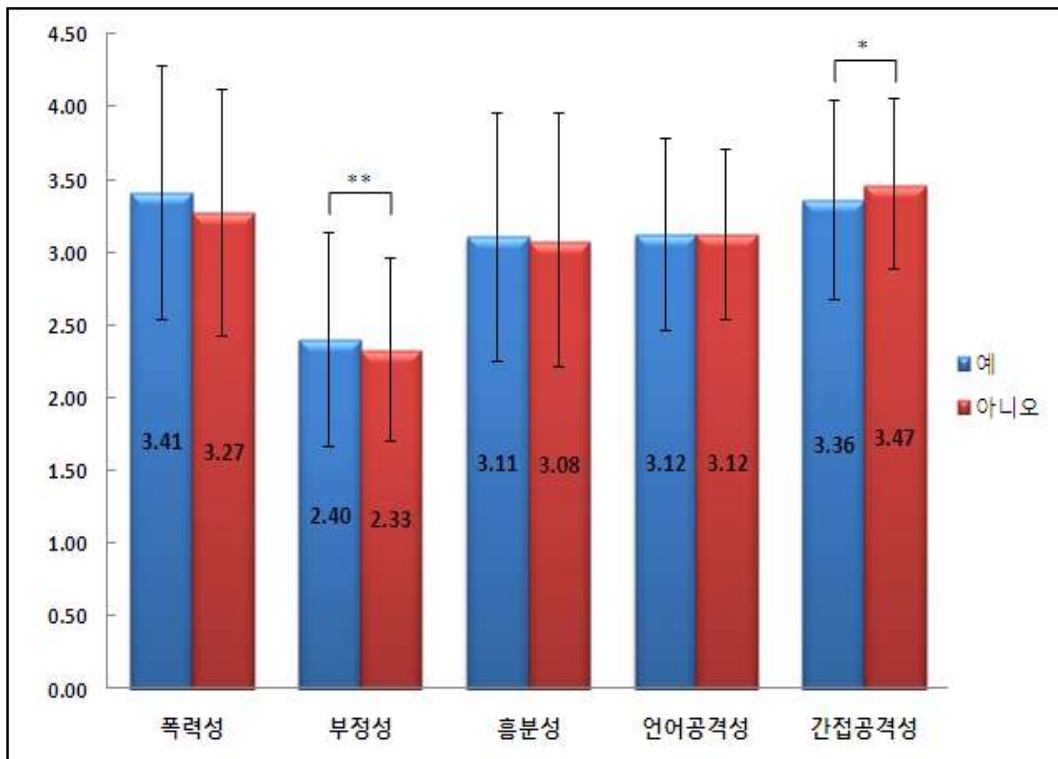


그림 2.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 3.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도덕성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그 결과 공격성에서 사회적 가치판단( $t=-1.99, p<.05$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가치판단이 낮을수록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21$ ).

표 10.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B	SE	$\beta$	$t$	$p$
상수	3.59	.32		11.25	.00
도덕적 가치판단	.06	.10	.03	.60	.55
사회적 가치판단	-.21	.11	-.11	-1.99	.05*
윤리적 가치판단	.05	.10	.03	.52	.61

$$R^2 = .094^a \quad F = 1.33 \quad p = .27^a$$

## V. 논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통된 특성을 갖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단계이다(Adams & Shea, 1979). 이러한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사회적 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양성아, 1995).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타인과 협상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실제적 경험을 하게 되고, 나아가 모험게임, 리그전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즐거움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절제력, 인내심 등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 발달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된 도덕성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를 경험해 본 청소년은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인 기능인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인격형성, 시민정신과 같은 바람직한 윤리와 가치들을 학습하여 도덕성 발달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이론과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위(간접공격성, 흥분성, 폭력성, 언어적 공격성, 부정성)중에서 특히 간접공격성과 부정성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공격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에서 개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축감을 갖게 하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 행위이다(박덕규, 1983). 또한 공격성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신체적·언어적·물질적 또는 사고 형성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의식적·무의식적 행위이다(문영택, 1994).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상 공격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한다면 결국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덕성의 사회적 가치판단 기준과 공격성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회적 가치판단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란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선호하는 이상적인 행동 양식이나 존재의 목적 상태에 관련된 하나의 지속적인 신념으로(Rokeach, 1973; 2000),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지으며 행위의 목표 수단과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희섭, 1994). 이런 가치판단의 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공격적이고, 즉흥적으로 불만을 해소하는 행동을 당연시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임혜옥(2005)은 오늘날 스포츠 현장에서는 승리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물질만능주의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다. 승리만을 위한

지나친 집착과 강조는 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거나 선수들 간의 폭행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단결심과 협동심, 성취감, 자긍심 등은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본다.

즉 스포츠 활동은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려 있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지나친 경쟁심보다는 협동심과 희생의식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훌륭한 스포츠 활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과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살인사건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들을 출세지향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인격 형성과 도덕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는 실정이다.

콜버그(Kohlberg)는 도덕성의 정의를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상의 일련의 문화적 준칙’으로 정의하였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화적 준칙을 내면화해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도덕성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으로 여겼다. 또한,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 특징에는 정의와 구조가 있으며, 각 단계들은 그 앞어오는 단계보다 더 포괄적이라 규정하여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임혜옥, 2005).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체육 수업 시수가 증가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시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육 수업이 무엇인지, 체계적

인 방법으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공격적 행위의 개선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체육 시설과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 행정조직 및 제도 등의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차원으로 스포츠 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스포츠 활동을 참가하는 청소년의 도덕적 실천력 함양과 공격성 개선 등을 위한 미래체육 교육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일부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사용하여 448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활동의 유·무에 따라 도덕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도덕성 단계를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활동을 참여한 청소년들이 공격성의 간접공격성, 흥분성, 폭력성, 언어적 공격성, 부정성의 5개요인 중에 간접공격성과 부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덕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에서는 도덕성의 요인 중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과 공격성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회적 가치 판단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서울 일부지역으로 한정 하였는데 표본추출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표본 추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무용, 태권도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담긴 신체활동을 통해서 고통과 인내를 극복할 줄 아는 한국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집중적인 스포츠 활동보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주 2~3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활용과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요소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곤, 정호원(1998). 스포츠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3), 43-52.
-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소, 김민남(역),(1985).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자(1993). 기독교학생과 비 기독교학생 간의 도덕발달 수준의 비교 연구 : 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규, 박찬주(1991). 도덕성 발달과 측정. 서울: 성원사.
- 김현배(1994). 도덕성 향상을 위한 대화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궁달화(2000). 윌슨의 도덕성 요소에 기초한 도덕 교육과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문용린(1986). 인지 발달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 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1).
- 문용린(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도덕 판단력, 행동, 문화 그리고 교육. 서울: 학지사.
- 문용린(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서울: 집문당.
- 문용린·문미희(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 개관. 청소년학연구. 제 1권 제 1호.
- 문종민(1995). 스포츠 행위의 윤리학적 고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정인(1997). 초등학교 청소년단체의 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률(2002). 체육교육을 통한 도덕성 발달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형석(2001). 스포츠와 인간. 대구: 이문출판사
- 신선미(2003). 체육활동이 남자 고등학생의 공격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영철(2000). 청소년의 스포츠·레저 참여와 도덕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순근(1994).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도덕성 발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용환(1998). 청소년 운동선수 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재완(1999).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만형(2000). 체육과 스포츠에서의 도덕성 발달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1), 11-23.
- 이학준(2003). 스포츠의 사회윤리. 서울: 북스힐
- 임번장(1986).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서 경기 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임혜옥(2005).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 판단 및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원채(2009). 고등학생의 체육활동이 도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이문각.
- Adams, G. R. & Shea, J. A.(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status, locus of control and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Hall, Inc.
- Buss, A. H. & Durkee, A.(1957). An inventory for assess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 Buss, A. H. &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Conflict and growth in the teenage years.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Basic Books Inc.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10 to 16.(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1988).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 Minneapolis. Winston Press.
- Leonard, W. M.(1986).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3rd ed). Minneapolis, MN : Bergess Publishing. Co.
- Meakin, D.(1981). Physical education: An agency of moral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15, 241-253.
- Piaget, J.(1960). , "The General Problems of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M. Tanner and B. Inhelder, eds., Discussions on Chil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tudy Group on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4.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iaget, J.(196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egan Paul.
- Rest, J.(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Rest, J.(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llen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ey & Sons.

# ABSTRACT

## Analysis on Sports Activities of Adolescents Based on Kohlberg's Theory

Yoon, Da Yo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sports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adolescents to acquire behavior patterns or attitudes required in social life by enabling them to experience basic emotions including anger, excitement, anxiety, fear, and frustration as well as developing their attitude that understands and respect others breaking from self-centeredness thinking. However, their delinquency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today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towards the education that focuses on grades, and pressure to study hard.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fine effects of sports activities on their morality and aggression based on the Stages of Moral Development by Lawrence Kohlberg (1927~1987) and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by Buss&Durkee.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500 adolescents aged from 13 to 18 residing in the Gangbuk area of Seoul. Excluding the data that has no answers or doubled-marked, 448 of valid samples have been used to analyze. The survey results have been computer-processed with statistical process software SPSS Ver 19.0.

For questionnaires of the study that measures morality of adolescent, the Defining Issues test (DIT) of Rest, which was developed from Kohlberg's stories suggesting conflict situation to a standardized multiple-choice test, has been used. In addition, in order to measure aggression of them, survey questions used by Shin Seon-mi (2003), which was adapted by Noh An-yeong(1983), made by Buss&Durkee(1957) have been revised and used.

In order to figure ou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have been used. In order to verify reliability, Cronbach's Alpha has been used. Moreover, in order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morality and aggression, the independent-sample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have been used. To verify validit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has been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differences of morality among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ve and have not participated in sports activities.

Second, there has been a statistical result ( $p=.01$ ) that sports activities positively affect the negativity (e.g. resistance or rejection of cooperation) or adolescents.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positive effect ( $p=.03$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ctivities and indirect aggressions (e.g. ill-intentioned slanders or mischievous prank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correlation between morality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it turned out that the less ability in social value judgments they had, the higher levels of violence they showed ( $p=.05$ ).

In this study, there has been no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ctivities and morality of adolescents.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the negativity figures. In addition,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morality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they showed higher levels of violence (aggression) when they had low levels of social value judgments (morality).

<부록. 설문지>

##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설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도덕 발달 단계와 공격성이 스포츠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또한,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입니다. 연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응답은 논문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전공  
연구자 : 윤 다 영



성신여자대학교

※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_\_\_\_\_ (2) 여자 \_\_\_\_\_

2.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는?

(1) 중학교 \_\_\_\_\_ (2) 고등학교 \_\_\_\_\_

3. 귀하가 재학 중인 학년은?

(1) 1학년 \_\_\_\_\_ (2) 2학년 \_\_\_\_\_ (3) 3학년 \_\_\_\_\_

4. 당신 가족의 수입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1) 70만원 미만 \_\_\_\_\_ (2) 70~100만원 \_\_\_\_\_ (3) 100~150만원 \_\_\_\_\_  
(4) 150~200만원 \_\_\_\_\_ (5) 200~300만원 \_\_\_\_\_ (6) 300~500만원 \_\_\_\_\_  
(7) 500만원 이상 \_\_\_\_\_ (8) 기타 \_\_\_\_\_

5. 귀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_\_\_\_\_ (2) 아니오 \_\_\_\_\_ (→11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6. 귀하가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부모님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찬성 \_\_\_\_\_ (2) 보통 \_\_\_\_\_ (3) 반대 \_\_\_\_\_

7. 귀하는 일주일에 몇 차례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2회 \_\_\_\_\_ (2) 3회 \_\_\_\_\_ (3) 4회 \_\_\_\_\_ (4) 5회 이상 \_\_\_\_\_

8. 귀하는 1회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은?

(1) 30분 이내 \_\_\_\_\_ (2) 30분 ~ 1시간 \_\_\_\_\_  
(3) 1시간 ~ 2시간 \_\_\_\_\_ (4) 2시간 이상 \_\_\_\_\_

9. 귀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종목만 골라 쓰세요) \_\_\_\_\_ 번

- |                                                                                                                                                                                                                                                                               |
|-------------------------------------------------------------------------------------------------------------------------------------------------------------------------------------------------------------------------------------------------------------------------------|
| 1) 수영 2) 수상스키 3) 윈드서핑, 요트 4) 스케이트 5) 스키<br>6) 맨손체조, 줄넘기 7) 기계체조 8) 육상, 조깅 9) 롤러스케이트 10) 볼링<br>11) 에어로빅 12) 자전거 13) 등산, 캠핑 14) 헬스 15) 승마 16) 테니스, 스퀘시<br>17) 배드민턴 18) 레슬링 19) 태권도 20) 유도 21) 검도 22) 합기도, 무술 23) 복싱<br>24) 배구 25) 야구 26) 축구 27) 핸드볼 28) 농구 29) 럭비 30) 무용 31) 탁구 |
|-------------------------------------------------------------------------------------------------------------------------------------------------------------------------------------------------------------------------------------------------------------------------------|



## 남편의 고민

**질문1)** 한 부인이 이상한 종류의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보기에, 이 병에 도움이 될만한 약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약이란 라디움의 일종으로서, 그 동네의 약국 주인이 최근에 발명한 것이었다. 이 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약국 주인은 매우 비싼 값에 팔려고 하였다. 부인의 남편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겨우 필요한 돈의 절반을 마련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약국 주인에게 찾아가,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싸게 파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반값을 마저 드릴 터이니 약을 먼저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애원하여 보았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래서 남편은 낙담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에 숨어들어가 약을 훔쳐오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1-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훔친다 (     )     ② 잘 모르겠다 (     )     ③ 훔치지 않는다 (     )

11-2 다음의 각 질문들은 당신의 위와 같은 결정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

매우 중요하다 ①	대체로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별로중요하지않다 ④	전혀중요하지않다 ⑤	질문
					1. 이유야 어떻든간에 법이 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훔치는게 당여하지 않을까?
					3. 그 약을 먹는다고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 데 형무소에 갈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
					4. 이 남편을 레슬링 선수이고 선수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5. 아내를 구한다는 마음에서 훔치는가 아니면 남편 그 자신에게 이득이 올 것이기 때문에 훔치는가?
					6. 그 약에 대한 약국 주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7. 삶의 본질은 죽음이라는 종말보다 더 포괄적인게 아닐까?
					8. 각 등장인물의 상호행동 속에는 어떠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어느 가치가 더 기본적인가?
					9. 약국 주인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을 믿고서 무리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10.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인 생명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닌가?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병혹하기 때문에 도둑을 당해도 싸지 않을까?
					12. 약을 훔쳐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약도 안훔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값진 행동이 아닐까?

11-3 위의 12개 질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은? (질문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차례로 쓰면? (     ) - (     ) - (     ) - (     )

## 탈옥수

**질문2)** 한 사람이 10년 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다. 감옥에서 1년을 보낸 후, 그는 탈옥을 하여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었다. 8년간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그는 성공하여 커다란 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물건을 생산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 최고의 봉급을 주었고,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부인이 이 부자가 바로 8년 전에 탈옥한 범인이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은 이 부자가 고발당하게 되면, 그는 다시 잡혀 들어가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부인은 이 부자를 고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2-1 이 부인은 부자를 고발해야하는가?

- ① 고발해야 한다 (    )    ② 잘 모르겠다 (    )    ③ 고발하면 안 된다 (    )

12-2 다음의 각 질문들은 당신의 위와 같은 결정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

매우 중요하다 ①	대체로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별로중요 하지않다 ④	전혀중요 하지않다 ⑤	질문
					1. 탈옥 후 8년 간 좋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다.
					2. 탈옥하여 다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탈옥을 하려고 애쓰는 죄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3. 법에 의한 제약이나 감옥 같은 곳이 필요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4. 그 범인은 정말로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5.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의 선한 행실을 모독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다.
					6. 특히 자선가에게 있어서 사회로부터 감옥을 걸리했을 때 이득이 있는가?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잔인하고 인정 없는 행동이다.
					8. 그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탈옥하지 않고 착실히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죄수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다.
					9. 이 부인은 그 일을 알기 전에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는가?
					10. 이유야 무엇이건 간에, 탈옥한 범인을 고발하는 것이 건전한 시민의 의무이다.
					11. 시민 각 개인의 의견과 사회 전체의 공동의 이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12.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 범인 개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인가?

12-3 위의 12개 질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은? (질문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차례로 쓰면? (    ) - (    ) - (    ) - (    )

## 의사와 환자

**질문3)** 한 젊은 부인이 고치기 어려운 암에 걸려 6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암은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통이 심할 때 환자는 아픔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기 까지 한다. 모르핀과 같은 강한 진통제를 주면 고통을 덜어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은 허약한 환자에게는 너무 강한 것이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나마 더 단축시킬 위험을 안고 있었다. 가끔 고통이 얼마간 가라앉을 때 이 부인은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사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한다. 그녀의 말인 즉,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것은 자기로서는 참아 내기가 매우 어렵고, 참아 보았자 몇 개월 내에 죽기는 마찬가지이니 고통 없이 죽게 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고맙겠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과연 환자의 요청대로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사해서 그녀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3-1 의사는 이 환자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 ① 들어 준다 (     )    ② 잘 모르겠다 (     )    ③ 들어주면 안 된다 (     )

13-2 다음의 각 질문들은 당신의 위와 같은 결정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

매우 중요하다 ①	대체로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	질문
					1. 무엇보다 환자 가족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많은 진통제를 주사하여 환자가 죽게 되면 명백히 살인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살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3.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결단에 사회의 형식화된 절차와 법규를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4. 의사는 실수한 것처럼 꾸며서 환자의 요청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5. 과연 국가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살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
					6. 사회에서 보는 개인의 가치에 앞서는 죽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7.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눈길과 평가에 더 관심을 써야 하는가?
					8.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있다.
					9. 오직 신만이 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10. 의사가 안락사를 돕는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할 것인가?
					11. 아무리 자기 생명이라도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도록 사회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12. 사회가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면서도 살고자 원하는 다른 생명들을 여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는 생각해야 한다.

13-3 위의 12개 질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은? (질문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차례로 쓰면? (     ) - (     ) - (     ) - (     )

14. 다음은 귀하의 공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해당되는 칸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누가 때린다면 맞서서 같이 때린다.		5	4	3	2	1
2	나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난다.		5	4	3	2	1
3	나는 잘못을 고치라는 지적을 받으면 언짢다.		5	4	3	2	1
4	나는 내가 흥미 있는 일을 할 때 방해 하면 쉽게 화를 낸다.		5	4	3	2	1
5	나 혹은 나의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5	4	3	2	1
6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5	4	3	2	1
7	나는 가끔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다.		5	4	3	2	1
8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 화가 난다.		5	4	3	2	1
9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한다.		5	4	3	2	1
10	나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한다.		5	4	3	2	1
11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2	나는 화가 났을 때 때때로 토리진다.		5	4	3	2	1
13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증오할 때가 많다.		5	4	3	2	1
14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쟁할 수밖에 없다.		5	4	3	2	1
15	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5	4	3	2	1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와 다른 나의 견해를 내색하는 편이다.		5	4	3	2	1
17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5	4	3	2	1
18	나는 화가 났을 때 가끔 문을 '짱' 닫는다.		5	4	3	2	1
19	나는 인간관계에서 참을성이 없는 편이다.		5	4	3	2	1
20	나는 나도 모르게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5	4	3	2	1
21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5	4	3	2	1
22	나는 짓궂은 장난으로 험한 말을 많이 한다.		5	4	3	2	1
23	나는 누군가가 나를 비웃으면 화가 난다.		5	4	3	2	1

24	나는 화가 났을 때 험한 말을 많이 사용한다.	5	4	3	2	1
25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면 억울하다.	5	4	3	2	1
26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대 얻어맞기를 자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4	3	2	1
27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주 화가 난다.	5	4	3	2	1
28	나는 종종 나 자신을 폭발하려고 하는 화약과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5	4	3	2	1
29	나는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쉽게 말한다.	5	4	3	2	1
30	나는 부담감을 느낄 때 화가 난다.	5	4	3	2	1
31	나는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5	4	3	2	1
32	나는 10살 이후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울화통을 터트린 적이 많다.	5	4	3	2	1
33	나는 때때로 시비를 거는 말들을 많이 한다.	5	4	3	2	1
34	사람들이 나에게 호통을 칠 때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5	4	3	2	1
35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	5	4	3	2	1
36	나는 누구하고나 자주 싸운다.	5	4	3	2	1
37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숴 버린 적이 있다.	5	4	3	2	1
38	나는 쉽게 화를 내지만 또한 쉽게 풀어진 다.	5	4	3	2	1
39	나는 친구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때는 그 점을 지적해 준다.	5	4	3	2	1
40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다.	5	4	3	2	1
41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 한다면 쓰겠다.	5	4	3	2	1
42	나는 화가 났을 때 가끔 책상을 내리친다.	5	4	3	2	1
43	나는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운다.	5	4	3	2	1
44	나는 누가 껄스리게 해서 혼내주어야 할 때 그의 자존심을 상하도록 해준다.	5	4	3	2	1
45	나는 요즘 신경질을 조금 내는 편이다.	5	4	3	2	1
46	나는 거짓 험박을 자주 한다.	5	4	3	2	1
47	나는 논쟁할 때 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5	4	3	2	1
48	나는 어떤 일에 반대하여 논쟁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5	4	3	2	1
49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볼 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5	4	3	2	1
50	나는 표정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때때로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5	4	3	2	1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